



AUTUMN 2019
VOL.195

홀트소식



가을 이야기

매년 방학이면 개최되는 꿈동이 캠프를 통해 1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은 곳은 정마에 비가 오는 날씨에도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16p 계속)



Contents

- 04 꿈과 희망 1
413일, 아이들의 빈 시간
- 07 꿈과 희망 2
화이트 불펜러, 세상을 움직이다!
- 10 행복한 가족 만들기 1
우리집에 놀러올래?
- 12 꿈과 희망 3
제16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지역대회 권리지킴이 '홀트프렌즈_그린'
- 13 행복한 가족 만들기 2
엄마와 아이 모두 행복한 'mom편한 글램핑'
- 16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1
2019 신나는 꿈동이 여름캠프
- 19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2
첫 시작, 교실 증축과 센터 개소 이야기
- 22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3
몽골 홀트드림센터 방문기
- 24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4
국내입양가정 아동 의료비지원사업 'Love In Care'
- 26 나눔 이웃 1
박지윤의 욕망라디오와 함께하는 후원금 전달식
- 28 나눔 이웃 2
입양아동 발도장 기념액자 재능기부 '리뷰아트'
- 30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홍현국 이사장(공인회계사) | 임부웅 이사(前 HICS 부회장) | 정용근 이사(前 동국대학교 교수) | 설태호 이사(주복상사 대표) | 김경희 이사(前 홀트전국후원회 회장) |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린다 백 이사 |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 박철용 감사(삼덕회계법인 부대표)

아동/청소년복지

본부 국내입양팀 T.02) 331-7000
경기지부 T.031)217-5999
광주지부 T.062)227-8877
대구지부 T.053)756-0183
부산지부 T.051)465-0224
인천지부 T.032)424-0145
충청지부 T.042)586-1983
전주영아원 T.063)222-155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T.032)424-1391
홀트의원 T.02) 331-7060

미혼한부모가족복지

미혼한부모지원센터 T.02) 331-7080

고운돌 T.031)216-9004
아름뜰 T.02)334-4614
아침뜰 T.042)585-3004
광주클로버 T.062)361-5900
대구클로버 T.053)654-0181
대전클로버 T.042)583-4006
마포클로버 T.02) 322-3325

장애인복지

홀트복지타운 T.031)914-6631
홀트강동복지관 T.02)2251-6100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T.031)929-1500
홀트보호작업장 T.031)914-6629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T.031)914-6635
홀트학교 T.031)915-2912

지역사회복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T.053)563-1007

홀트광주심리상담센터 T.062)363-8878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T.053)627-8875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 T.032)424-5839
분리복지관·늘봄심리상담센터 T.053)563-1007
홀트수영복지관·가족상담센터 T.051)760-3600
운봉복지관·아동발달지원센터 T.051)543-2431
하남복지관·아동가족상담센터 T.031)790-2900

건강가정/다문화가족복지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6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영유아복지

마포어린이집 T.02) 334-4743
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중동어린이집 T.02) 375-6755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시립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00

국제개발협력

홀트드림센터(캄보디아, 탄자니아, 몽골, 네팔) T.02) 331-7085
본부 해외사업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통권 | 195호·계간 발행일 | 2019년 9월 20일 발행인 | 홍현국 편집인 | 김호현
발행처 | 나눔사업본부 홍보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후원문의 | 1899-0923 후원ARS | 060-700-1006
홈페이지 | www.holt.or.kr 디자인 | 일투다투
좋은 사연·좋은 제언 | pr@holt.or.kr

“413일, 아이들의 빈 시간”

입양대기아동 지원캠페인 · 나눔협력팀 **홍은지**

‘413일, 아이들의 빈 시간’ 캠페인은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입양대기아동을 돕기 위한 후원 캠페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부모와 헤어져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 전까지 걸리는 평균 413일의 빈 시간을 여러분이 함께 채워주세요.



입양대기아동에게 413일의 빈 시간이란?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와 413일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이들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먹고, 자고, 우는 것 밖에 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이던 갓난아이가 쑥쑥 자라 목을 가누고 웅알웅알 웅알이를 하더니 부모와 눈을 맞추고, 마침내 첫 발걸음을 떼기도 합니다. 413일의 시간동안 부모의 따뜻한 품을 느낌과 동시에 슬픔, 불안의 감정도 느끼고 기억할 수 있는 나이로 한 뼉 성장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아이들의 행복한 유아기의 기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나 봅니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이별을 경험한 입양대기아동들의 413일은 여느 아이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친부모와의 이별 이후 새로운 가족을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평균 413일. 이 시간에 입양대기아동들이 겪는 여러 순간들을 친부모도, 입양부모도 함께 기억해줄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의 빈 시간으로 남습니다. 태어나 처음 겪는 첫 순간들을 함께 기억하고 축하해줄 가족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입양대기아동의 빈 시간을 함께 채워주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

♥ 고창석 · 이정은 부부

아이들의 빈 시간을 채우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먼저, 배우 고창석 · 이정은 씨 부부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된 딸의 첫 순간들을 돌이켜 보며 부모의 마음으로 캠페인 소개 영상 촬영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창석 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입양대기아동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 전까지 홀로 보내는 시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라며, 입양대기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413일, 아이들의 빈 시간’ 캠페인의 1호 정기 후원자로 참여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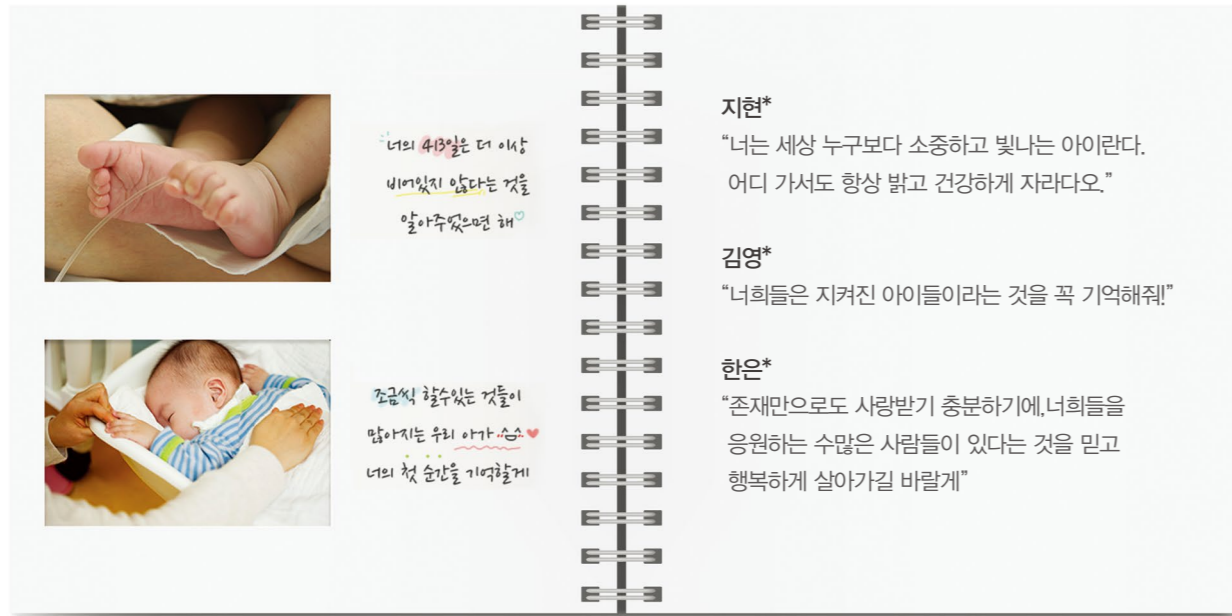


♥ 홍현희 · 제이슨 부부

그리고 최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홍현희 · 제이슨 씨 부부도 캠페인에 뜻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바쁜 시간을 쪼개어 캠페인 영상 촬영에 응해주신 부부는 서로의 가족을 만났던 첫 순간들을 떠올리며,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입양대기아동들의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여 매력 넘치고 따뜻한 두 부부의 캠페인 영상을 꼭 한번 감상해보세요!



그리고 이어진 수많은 응원의 메시지



두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닿았을까요.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갯글' 이벤트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입양 대기아동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중학생 친구부터 입양을 결심한 가족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위해 따뜻하고 진심어린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남겨주신 메시지들은 위탁가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바로 홀트의 거리 캠페인을 통해서 말이죠. 캠페인 오픈과 동시에 서울, 강원, 대구 등 전국의 많은 거리에서 민트색 의상의 캠페이너들이 입양대기아동의 빈 시간을 알리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따뜻한 목소리로 희망과 나눔의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이너를 만난다면 잠시 멈춰 서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에 한번만 귀 기울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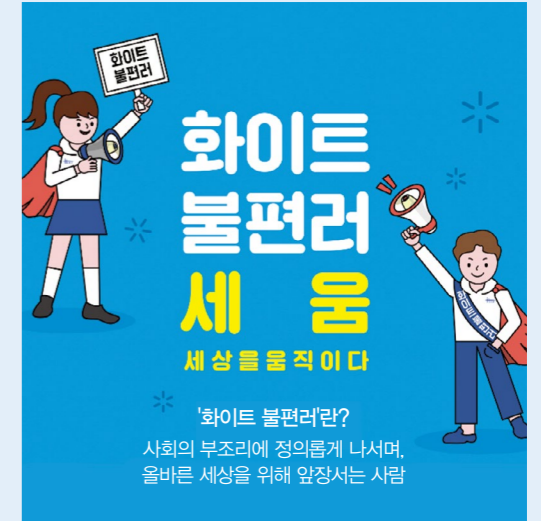


'413일, 아이들의 빈 시간' 캠페인은 앞으로도 꼭 진행될 예정이니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히 모아주시는 후원금은 모두 입양대기아동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 전까지 필요한 양육비로 지원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가족을 만날 때까지 홀트아동복지회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트 불편러, 세상을 움직이다!

아동권리공모전 시상식 · 복지전략팀 정지수

지난 8월 23일, 우리회 6층 강당에서 즐거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올해 첫 사업을 시작하여 1회째를 맞는 '아동권리 공모전' 시상식입니다. 이 날 시상식에는 김호현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마포구 아동청년과 오상철 과장, 공모전 수상자 어린이까지 총 50여명이 참석하여 공모전 수상증서 및 부상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동권리 공모전은 올해 6월부터 진행된 아동권리 옹호사업 '화이트 불편러, 세상을 움직이다(세움)'의 일환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존중과 실현을 위해 아동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인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회와 마포구청(구청장 유동균)이 함께 힘을 합쳐 협력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공모전은 참여자 모집은 약 한달 간 진행되었고, 서울시에 위치한 초·중등학교(동교초, 신구중 외 6개)에서 총 446건(온라인 51건, 오프라인 395건)으로 아이들의 생각이 담긴 많은 수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 총 74명(소파방정환상 1명, 마틴루터킹상 3명, 넬슨만델라상 20명, 참가상 50명)을 선발하여 수상하였고, 공모전 수상자 중 마포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는 '아동정책 참여위원회'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의미있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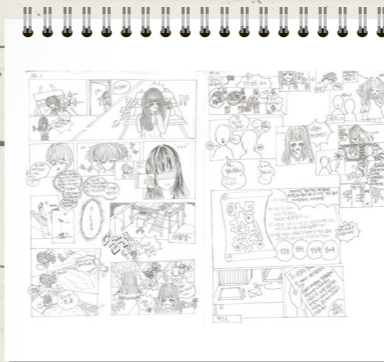
마포구 아동정책참여위원회(이하 아참위)는 아동 스스로 참여권 실현을 위해 아동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토론했으며 직접 제안하는 자리이며, 아동권리교육 및 모의 마포구의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상식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일정으로는 9월 중 '아동정책참여위원회 발대식(9/20) 및 워크숍(9/21)'이 예정되어 있어 아이들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며,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소파방정환상

용강초등학교 4학년 손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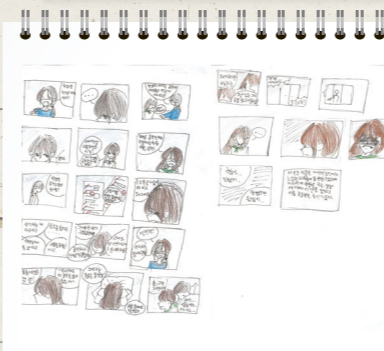
저는 다문화가정이고 엄마가 캄보디아에서 오셨어요. 저는 한국음식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캄보디아 음식을 좋아해서 캄보디아 음식을 많이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캄보디아 음식도 좋지만 한국음식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틴루터킹상

홍익여중학교 1학년 김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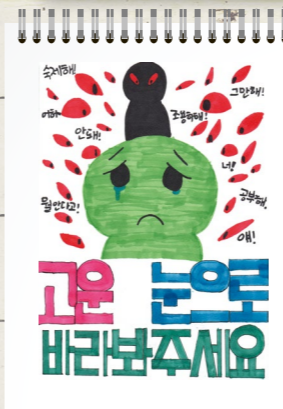
웹툰 제목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존중해주세요'입니다. 저는 평소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면 주변에서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그림 그리고 있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제가 좋아하는 걸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마포구에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고, 참여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정한 참여권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존중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른들이 제가 좋아하는 걸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틴루터킹상

성서초등학교 5학년 임다빈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학생은 학생다워야지'라면서 학업 성적으로 저희들을 평가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저희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틴루터킹상

창동초등학교 5학년 이채연

어른들이 곱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면 마음이 철렁해요. 긴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고운 눈으로 고운 말로 아이들을 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심코 하시는 아이씨, 제길, 이런 말들도 마치 나에게 하는 말 같아서 움찔하는 때도 있어요. 아이들에게만 '예쁘게 말하렴', '고운 말을 쓰렴', '예의 바르게 해야지' 하지마시고 먼저 고운눈빛과 말씨로 대해주세요.

우리집에 놀러올래?

주거지원사업 · 아동청소년팀 정수영, 나눔협력팀 김유진



은지는 요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노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은지 어머니는 은지가 친구들과 재잘거리며 집으로 올라오는 소리만 들어도 은지의 기쁜 마음이 느껴져서 덩달아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은지는 필리핀 어머니와 중학생인 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입니다. 단란했던 은지네 가족은 2014년 갑작스러운 한국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저축해 둔 것으로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은지의 친할머니까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의지할 곳 하나 없어 마음이 너무나 외로웠다고 합니다.

은지네는 방이 2개 있는 빌라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의 방은 단열과 방수가 안 되어 늘 곰팡이가 슬고 특히 비나 눈이 오면 물이 새어 그로 인해 천장과 벽, 바닥이 부식되어 부자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등 안전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은지와 오빠는 각자의 방을 갖고 싶어 하는데 3명의 가족이 하나의 방에서 같이 잠을 자거나 싱크대 앞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볼 때 어머니는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집이 습한 상태여서 가전제품들에 전기 감전 위험이 있는 상황이지만 집을 보수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물만 밖으로 빼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회의 '맘든든 울타리'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허리디스크와 치아부식으로 건강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심리적인 상실감이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 자신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마음이 은지와 오빠에게 행여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었지만, 집이 점차 수리되면서 가족을 도와주는 여러 곳에서의 마음과 손길에 어머니의 마음도 많이 회복됨을 느꼈습니다.

은지네 집에 방문하는 날, 작년부터 이 사업을 후원하고 있는 (주)신세계프라퍼티의 임직원분들도 두 손 가득 선물 보따리를 들고 함께했습니다. 은지어머니는 집의 변화를 통해 열심히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었고, 혼자가 아니라 홀트와 신세계프라퍼티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깊이 감사하다며, 언젠가 우리 가족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살아가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의 참여로 모여져 기부되었기에, 어머니의 감사인사는 후원자분들에게 뿌듯함과 더불어 또 다른 맘든든한 울타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화된 집에서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내내, 은지네 가족도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후원자분들의 얼굴에도 모두 함박웃음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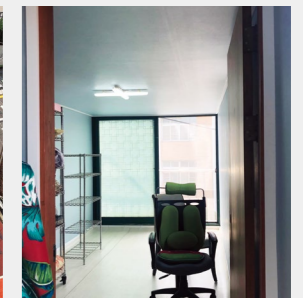
• 보수전 ①



• 보수중 ②



• 보수완료 ③



은지네는 방수처리 시공, 벽지와 장판 교체를 통해 비가와도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벽을 검게 뒤덮었던 곰팡이도 사라져 이제는 친구들도 집으로 초대해 숙제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맘든든 울타리'를 후원하고 있는 (주)신세계프라퍼티는 대중에게 익숙한 스타필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2018년부터 맘든든 울타리의 주거개보수 가정들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가치를 더하는 공간, 삶의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공간을 만들어간다.'라는 회사의 방향성에 맞게 아이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행복이 더해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주거지원 사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맘든든 울타리' 가정들에 행복의 웃음소리가 오래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감사편지

안녕하세요. 불편했던 것이 고쳐진 집에 사는 은지엄마입니다. 지금 공사가 끝나고 불안감없이 살고 있는데요. 천장의 판이 떨어지는게 불안했는데 공사하고 없어지니까 '갈끔하고 안전해졌어요. 공사하고 인테리어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원해주신 300만원으로 진행했는데 받기만 하는거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아이들과 같이 사는 집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변화되어서 기뻐요. 많은 것들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주거지원사업인 '맘든든 울타리'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가족의 삶에 대한 활력과 희망을 위해 2017년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매년 평균 25~30가정을 선정하여 전월세 및 개보수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개보수 지원을 중점적으로 한부모, 다문화, 장애아동 가정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6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지역대회 권리지킴이 ‘홀빛프렌즈_그린’

아동청소년팀 김현영



제16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지역대회 홀트아동복지회 아동·청소년 권리지킴이 ‘홀빛프렌즈_그린’의 활동이 7월 20일, 27일, 30일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본 행사에 우리회는 협력 단체로 20명의 아동·청소년을 모집하여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홀빛프렌즈_그린’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옹호와 참여권 실현을 위해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스스로 앞장서 삶의 주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적극적인 개선 방향을 찾아 나가고자 ‘하이파이브’ 캠페인을 실시하여 거리 행진을 통해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위의 활동을 통해 선발한 5명은 8월 6~8일 2박 3일간 진행된 전국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첫 참가임에도 250명의 앞에서 당당하게 정책 제안문을 발표하고, 대표로 참여증서를 받고, 방송 인터뷰를 하는 등 많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참여한 아이들은 다양한 지역의 친구들과 여러 안전에 대해 토론하며, 내년에는 아동총회 의장단이 되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참여해준 ‘홀빛프렌즈_그린’ 20명의 아동·청소년과 캠페인 진행에 함께 참여한 25명의 자원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마와 아이 모두 행복한 ‘mom편한 글램핑’

미혼한부모 심리정서지원·미혼한부모지원센터 김주연

여름이 무르익기 시작한 6월 13일, 미혼한부모가정과 사룻데봉사단은 파주 글램핑장으로 함께 1박 2일 캠핑을 떠났습니다. 2016년부터 롯데GRS와 함께 진행해온 ‘mom편한 글램핑’은 미혼한부모가정의 가족 간 유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른 아침 우리회 6층 강당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어깨에 뭉큰 가방에는 글램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글램핑 기간 동안 미혼한부모가정의 아이들에게 이모, 삼촌이 되어줄 샤롯데봉사단의 표정도 가족들과 같았습니다.



mom편한 글램핑

아이들은 이모, 삼촌,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버스에 올라 파주에 위치한 글램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푸른 자연 속에서 첫 번째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롯데GRS에서 준비한 그린캠페인 '나만의 화분 만들기'입니다. 준비된 하얀 도자기 화분을 각자의 개성대로 꾸미기 시작합니다. 진행자가 "자, 이제 모두 펜을 놓고 식물을 골라주세요"를 외치는 동안에도 아이들의 창작 욕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신중하게 고른 식물이 각양각색으로 꾸며진 화분에 옮겨집니다. 초록빛깔 식물과 함께 고사리 손으로 정성스레 화분을 만든 즐거운 추억도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길 바랍니다.



'미니 체육대회'는 소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와 협동심은 무더운 날씨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자연 속을 산책하며 일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람쥐를 만나 인사하고, 꽃과 다양한 식물들의 이름을 맞춰보기도 합니다. 글램핑의 모미! 야외 BBQ로 저녁식사를 마친 후, 모두 강당에 모여 레크레이션과 가족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접 작사한 노래를 부른 가족부터 만화 주제가 따라 부르기, 아이돌 노래, 탭댄스까지 가족들과 샤롯데봉사단이 다양한 재주를 선보이며 글램핑의 밤을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글램핑에 참석했던 어느 가정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흐르는 물소리와 새들의 지저귀음을 들을 수 있는 자연에서 보낸 1박 2일은 지쳐있던 일상에 선물 같은 쉼이었습니다. 샤롯데봉사단분들이 함께있어 집 안팎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늘 긴장하고 있었던 저도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어요. 매 순간 환한 웃음을 보이던 아이가 봉사단분들과 헤어지는 순간이 아쉬웠는지 잠은 손을 쉽게 놓지 못하더라고요. 아이와 좋은 추억 만들어주신 홀트아동복지회 그리고 롯데GRS 봉사단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혼한부모와 아동 모두 힐링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롯데GRS 샤롯데봉사단의 수고와 더불어 3년째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신 롯데GRS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미혼한부모가정과 아이들이 밝게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9 신나는 꿈동이 여름캠프

꿈과희망 지원사업 · 아동청소년팀 서정기



지난 7월 25~26일, 1박 2일간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제11회 꿈과희망지원 사업 '신나는 꿈동이 여름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방학이면 개최되는 캠프를 통해 1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은 곳곳은 장마에 비가 오는 날씨에도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출발해 한곳에 모인 꿈동이들은 입소식을 시작으로 1박 2일간의 일정을 즐겁게 소화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꿈을 함께 응원해주시는 후원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손수건에 꽃물을 들이고 메시지를 담은 편지쓰기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는데요. 그동안 후원자분들께 받은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외된 이웃의 복지증진과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우리회 고액기부자 모임인 '탐리더스' 김윤정 회

장을 비롯하여 김경희 홀트아동복지회 이사, 이수진 홀트아동복지회 전국후원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또한 캠프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약품 및 모기패치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파란문약국 홍경아 대표와 직원 분들도 참석했고, 롯데제과에서는 꿈동이들을 위해 간식을 후원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캠프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진행된 레크레이션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깜짝 등장해 꿈둥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미 예정된 바쁜 스케줄로 꿈둥이 캠프에 올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선 삼촌(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이 방문해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최근 출연한 TV프로그램 '정글의 법칙'과 더불어 개인적인 진로 고민까지 참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요. 선 홍보대사는 아이들 한명 한명 이름을 부르고 경청하며 정성스럽게 답해주었습니다.

무더운 올 여름도 '꿈둥이 여름캠프'를 통해 모두가 스트레스를 풀며, 힐링이 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국의 꿈둥이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꿈둥이들의 꿈이 더욱 밝게 빛나고 끝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

'꿈둥이'란?

매년 전국 위기가정아동들을 '꿈둥이'로 선발하여 만 18세가 될 때까지 학습지원, 예체능교육,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2009년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 선·정혜영 부부의 광고출연료 1억 원 기부로 시작되었으며 100주년기념교회, 고액후원자모임 '탑리더스'가 참여하여 현재 전국 300명의 꿈둥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 교실 증축과 센터 개소 이야기

해외지원사업 · 해외사업팀 이동은, 박소현

천사네트워크 트모다 초등학교 교실 증축 후원

캄보디아의 많은 NGO들이 프놈펜 지역에만 집중되어있어, 상대적으로 지방도시의 낙후된 초등학교들은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사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캄보디아 깜뽕참 지역(프놈펜 공항에서 40km)에 위치한 트모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금년 8월, 따뜻한 마음을 모아 교실을 선물하였습니다.





트모다 초등학교는 교실 수가 부족하여, 3개뿐인 교실에서 모든 아동들의 수업을 진행하고 심지어 5,6학년 아동들은 한 반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실 수가 부족하다보니, 트모다 마을의 아동들은 가까운 트모다 초등학교가 아닌 먼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천사네트워크에서 2만 불을 후원해주셨으며, 마을 이장님과 교장선생님이 4천불을 모금하여 올해 5월부터 교실 3개를 추가로 증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학년별 분반수업이 가능해져 체계적인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22일은 고대하던 교실 증축 준공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학생 284명과 마을 주민 200여명이 모인 마을 대잔치 같은 분위기속에서 준공식은 진행되었습니다. 시의원을 비롯하여 교육감 등이 천사네트워크와 우리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천사네트워크는 교실뿐만 아니라 학용품(2,000권의 노트, 연필 300자루, 지우개 300개, 펜 400개)과 248벌의 티셔츠와 학교발전기금을 추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랑을 트모다 아이들에게 실천하였습니다.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는 아동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손이 닿지 않은 캄보디아의 아동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자들의 나눔의 손길이 캄보디아 아동들에게 전해지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천사네트워크는 2016년 네팔 툴라싸데비 초등학교 보건실 건축 후원 사업을 시작으로, 매 년 각 나라의 낙후된 초등학교의 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팔 홀트드림센터 개소

5월 15일, 네팔 카트만두시 코커나 지역에서는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본부장, 코커나 지역 구청장을 비롯한 아동과 부모들이 홀트드림센터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밝은 얼굴로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놀며 센터 개소를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내빈들의 점화식으로 시작된 개소식은 아동 대표 감사 메시지와 전통춤 공연으로 무대가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코커나 지역은 소수민족인 네와르족이 사는 곳으로 2015년에 지진피해로 건물 대부분이 붕괴되는 등 카트만두시 안에서 도 낙후된 지역입니다. 우리회는 코커나 지역에서 빈곤아동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빈곤가정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홀트드림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센터는 아동들이 건강한 영유아기와 학령기를 보낼 수 있도록 코커나 지역 내 유일한 실외 놀이터와 다양한 실내 교육교구를 제공하고, 테이커어·방과 후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팔 홀트드림센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더 큰 꿈을 키워나가며, 아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몽골 홀트드림센터 방문기

서울후원회 해외사업장 방문 · 나눔지원팀 송하영



언제나 홀트와 아동과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홀트아동복지회 서울후원회가 이번에는 몽골 홀트드림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멀리서 오는 반가운 손님 방문 소식에 센터의 아이들은 방학 기간이었지만 많이들 나와 밝은 미소로 반겨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봉사는 미용실에 자주 갈 기회가 없는 몽골의 아이들을 위한 미용 봉사였습니다. 서울후원회 회장님과 홀트아동복지회 이사님이 직접 한국에서 준비해간 바리깡과 미용가위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모두 오랜만에 미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헤어컷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설레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아이들이 무척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미용과 동시에 머릿니 잡기도 진행되었습니다. 몽골은 위생 환경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머릿니가 있습니다. 홀트의 또 다른 든든한 조력자인 '파란문약국'에서는 서울후원회에서 몽골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흔쾌히 넉넉한 수량의 머릿니 잡는 샴푸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미용을 끝낸 아이들은 서울후원회 부회장님과 총무님이 직접 샴푸를 머리에 도포하고, 깨끗이 감겨주는 머릿니 박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개운해지는 표정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개운한 시간을 가질 때,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들이 먹을 떡볶이를 요리하던 감사남도 계셨습니다. 한국처럼 완벽한 재료가 구비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떡볶이의 맛을 내어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해 몽골 가족의 모습을 잠시나마 들여다보고, 마음을 담은 선물도 전달했습니다. 비록 주어진 시간의 제약으로 많은 가정을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꿈을 꾸며 나아가길 바라는 진심을 담은 응원과 격려가 가정에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반갑게 맞이해준 눈이 맑은 아이들과 아이들의 예쁜 눈을 통해 사랑의 힘을 받고 돌아온 우리에게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8월 여름날, 짧지만 뜨거웠던 만남을 간직하고 서로 응원하며 다음 만남을 기대해봅니다.



국내입양가정 아동 의료비지원사업 'Love In Care'

국내입양팀 이수현

우리는 보호로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입양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입양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아동에게 경미하거나 중한 의료문제가 발생하여 장애진단을 받아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에게 무엇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중도장애가 발생한 아동과 그 가정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료비 지원 사업인 'Love In Care'를 시작했습니다.



1 병원에서 맞이한 생일파티
2 투병중에도 씩씩한 모습의 하나

지난 2월, 하나의 입양부모님으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생후 일주일만 지나 우리에게 입양의뢰 되었고 생후 1개월 만인 지난 2017년 1월 입양 부모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의 부모님은 아이와 함께 하면서 얻는 행복이 그 어느 것보다 크다고 생각하셨고, 하나는 그렇게 안정된 가정에서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행복한 일상 속 어느 날, 하나는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가족들은 편도염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치료과정에서 다양한 검사를 통해 소아백혈병의 일종인 '신경모세포종 4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입양부모님은 하나에게 최선의 치료를 지원하고 기도하며 성심을 다했습니다.

하나가 생후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5일 전인 지난 2월 20일 최종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총 6번의 항암치료와 1번의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와 가족들을 위한 방법을 찾던 중 'Love In Care' 사업을 기획하고 수술과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얼마 전 입양부모님께서 "홀트에서 지원해 주셔서 무사히 항암치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도 잘 견디고 이겨내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치료 과정들이 남아있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과 기도로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처럼 국내입양가정 중 긴급하고 어려운 의료문제가 발생한 아동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 탄생한 가족이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Love In Care'를 지원해 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랑 가득한 위탁가정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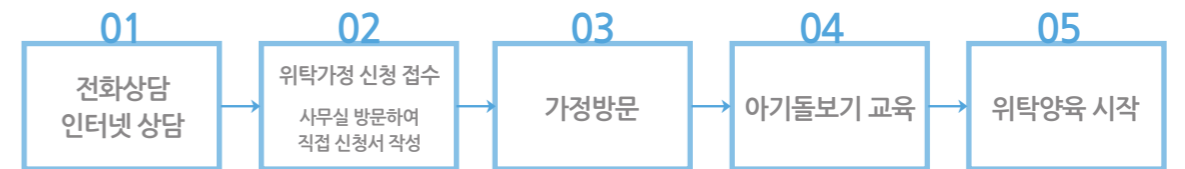
홀트아동복지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된 가정 안에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가정 선정요건

- 1) 정신적 ·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아동에 대한 애정이 있는 가정
 - 2) 신청인의 나이가 25세 이상 60세 이하로 아동양육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막내자녀가 초등학교 이상인 가정
 - 3) 교통이 편리하여 대중교통으로 쉽게 본회로 이동할 수 있는 가정
 - 4) 다른 부업을 하지 않거나 겸업하지 않는 가정
 - 5)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가정
 - 6)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가정
- ※보건복지부 위탁가정 운영지침에 부합하는 가정



위탁가정 선정절차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 2) 건강진단서 (전염성 질병 여부 기록 포함)
- 3) 위탁부 · 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치)

위탁가정 지원

- 1) 소정의 양육비
- 2) 아동 양육물품지급
- 3) 아동 의료비 지원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아동양육팀
- 전화 : 02) 331-7040~5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 8번출구)



박지윤의 욕망레이디오와 함께하는 후원금 전달식

나눔협력팀 채성현



여러 예능프로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박지윤 아나운서가 지난 6월 7일 인기 팟캐스트인 '박지윤의 욕망레이디오'에서 지원한 후원금을 미혼한부모들의 자립을 위해 쾌척하였습니다. 이날 박지윤 씨와 개그맨 정범균 씨, 진행자 박준형 씨 등이 참여하여 미혼한부모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후원금은 팟캐스트 애청자인 엄마들과 함께 감각적인 디자인과 좋은 밥맛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마카롱 밥술' 공동구매 이벤트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후원하는 자리여서 더욱 특별한 전달식이 되었습니다.

이날 박지윤 씨는 앞으로도 엄마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과 후원을 통해 어렵게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한부모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박지윤의 욕망레이디오의 후원금 1,000만원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미혼한부모가정에 교육, 의료 생계 및 주거비로 귀중하게 사용이 되었으며, 총 6개 가정의 가문에 단비와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입양아동 발도장 기념액자 재능기부 '리뷰아트'

나눔지원팀 송하영, 홍보팀 황지혜

기억해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어릴 적 모습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소중하게 남겨주시는 작가님이 계십니다. 아기 발도장 기념액자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리뷰아트'의 임진우 작가님이신데요. 새로운 가정을 만나는 아이들이 커서도 간직할 수 있도록 아기 발도장 기념액자를 정성껏 만들어 선물해주시는 작가님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16년간 다니던 직장을 나온 아이 셋의 다정한 아버이기도 합니다.



임진우 작가

- (전) 공주대학교 영상미디어 학과 외래교수
- (전) 수원 여자대학교 미디어컨텐츠과 외래교수
- (전) 메가존 인터랙티브 미디어팀 팀장
- (전) 디자인 정글아카데미 전임 강사
- 모션그래픽 관련 서적 집필
- (현) 리뷰아트 운영
- (현) 캘리그래피/일러스트 작가

Q1. 저희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방영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입양을 가는 아이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아기 발도장 액자를 만드는 '리뷰아트' 운영을 하면서 제가 가진 재능으로 아이들에게 기념이 되는 일을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홀트아동복지회에 연락을 드렸고 그렇게 인연이 되어 입양을 가는 아이들의 발도장을 만든 지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Q2. '홀트' 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지금 아이 세 명을 키우고 있는데 매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나 아이들 관련 이야기를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면 공감이 많이 됩니다. 특히 입양을 가는 아이들도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후원이나 재능기부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3. 후원과 재능기부를 통해 느낀 점이나 변화된 가치관 등이 있으신가요.

후원이나 재능기부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작은 관심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양을 결정하고 아이를 키우시는 입양가족 부모님들도 처음엔 관심에서 시작해 '사랑'이라는 따뜻하고 커다란 후원을 아이에게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4. 아이들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꽃마다 피고 열매 맺는 시기가 다르듯이 우리들도 각자의 꽃이 피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날까지 바른 인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면 좋은 기회가 올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꽃보다 향기롭고 햇살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아이들의 액자를 만들다보면 한명 한명이 참 예쁘다는 작가님. 그런 아이들도 키우다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기념액자의 옛 사진과 적어놓은 문구를 보면서 그 때 그 마음을 떠올려볼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도 '리뷰아트'의 제품을 구매한 일반 고객들의 리뷰에도 '액자 속 아이의 모습과 문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응원이 된다', '평생 추억할 수 있는 뜻깊은 작품'이라는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는 작가님은 더 도움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해달라는 감사한 말씀을 덧붙이셨는데요.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있어 아이들이 더욱 사랑받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털에서 '리뷰아트'를 검색하시면 정성 가득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재능기부 관련문의 : 나눔지원팀 02-331-7071, sponsor@holt.or.kr



제19대 홍현국 이사장 취임

7월 1일 우리회 6층 강당에서 우리회 임직원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태호 이사의 기도로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홍현국 이사장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 설립자의 뜻을 임직원, 후원자와 함께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홍현국 이사장은 2022년까지 이사장 직무를 수행합니다.



제13회 아름다운 청소년 꿈 캠프

8월 1일부터 1박 2일간 파주동화힐링캠핑장에서 아름다운 청소년 ‘꿈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소년 20인을 선발하여 꿈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에는 홀트복지타운을 방문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외성장입양인, 입양가족 모국방문

노르웨이 모국방문단의 방문을 시작으로 프랑스 모방단, U.S family, 아시아 family, Korean Ties 등 국외입양인들과 가족, 각 기관의 리더 등을 포함하여 총 200여명이 우리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국외입양인들은 자신의 입양 관련 기록이 담겨있는 파일을 열람하고 친가족, 위탁모 상봉 등 뜻깊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지부 국민은행 내당지점 후원금 전달

6월 24일 국민은행 내당지점(유보현 지점장)에서 입양대기아동들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해주시고 ‘413일, 아이들의 빈시간’ 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매년 의미있는 일에 동참해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움을 약속하며 홀트패밀리샵(#)으로도 참여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충청지부 국제존타대전 I 클럽 방문

7월 19일 국제존타대전 I 클럽(회장 나효숙)에서 우리회 충청지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국제존타대전 I 클럽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회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과 한부모 가정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해주셨습니다.



홀트학교 여름방학 늘해랑학교 운영

저소득층 자녀와 중도중복 장애학생, 맞벌이 부부 가정 학생들을 위한 늘해랑 학교를 7월 29일부터 약 2주간 진행했습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 연 2회 실시하는 본 행사는 현장체험학습, 영화관람, 물놀이 활동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장애극복의지를 고양시켜 학부모 만족도 매우 높았습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바른인성함양 프로젝트

관내 지역아동센터 2개소 아동들을 대상으로 바른인성함양 프로젝트 ‘인성의 조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성교육 및 놀이교육, 인성나눔행사, 숲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감사, 배려, 나눔 등과 같은 올바른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홀트복지타운 버다홀트 할머니 19주기 추도예배

장마가 한참이던 7월의 마지막 날, 버다홀트 할머니의 19주기 추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추도예배를 통해 60여 년 전 어머니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셔서 이 땅의 고아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홀트가를 돌아보았고, 다시금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시원한 여름나기 냉방용품 전달식

8월 7일 우리은행과 카카오 같이가치가 함께한 냉방용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은행, 카카오같이가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도움으로 진행된 이번 모금은 많은 분들의 정성이 모여 5,221,000원의 금액을 달성하였고 LH 주공아파트 입주민 50명에게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지원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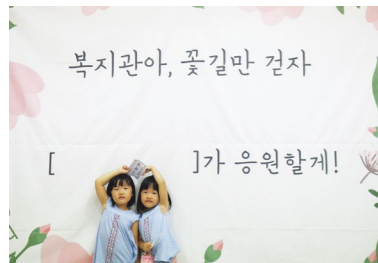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경력단절여성 아동요리지도사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아동요리지도사1급 자격취득과정 ‘아파맘마(아름답고 따뜻한 요리로 워킹맘들이 마을을 누비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본 사업은 자격증취득교실과 재능기부활동, 취·창업정보제공을 통해 경단녀들의 사회진출을 응원합니다.



**홀트대구중합사회복지관
홀트가족봉사단 여름김장 담그기**

6월 22일 가족봉사단 총 22개 기수 회원들이 후원금 1,300,000원을 직접 모아 여름철 무더위에 지치고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여름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부터 3년째 계속되는 본 행사는 올해 32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총 160세대의 이웃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홀트수영중합사회복지관
개관 12주년 기념행사 '생일축하해!'**

무더운 여름의 계절 7월 복지관의 12번째 생일파티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을 초대해 OX퀴즈부터 생일축하 방명록 남기기, 포토존 사진촬영, 생일맞이 팝콘&도서 무료 나눔 행사까지! 복지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들
'데이비드 호크니展' 감상**

7월 31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데이비드 호크니展'을 관람하였습니다. 드로잉, 판화 등 다채로운 표현 기법과 추상과 구상을 오가며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해온 화가의 시기별 예술적 여정을 감상하고 덕수궁 돌담길과 정동의 정취도 만끽하는 등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를 향유하며 여유롭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고운들
입소자 여름캠프**

8월 14일 이천 미란다호텔 워터파크에 다녀왔습니다. 온천과 유스풀, 파도풀 등을 이용하며 더위를 날리고 물놀이를 신나게 즐겼습니다. 여름캠프를 통하여 서로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며, 양육에 지친 엄마들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이 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들
해외가족연수 '세상 나들이'**

KT와 KTCS의 지원으로 아침들 가족 18명이 해외가족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박 3일간 함께한 엄마, 친구들과 함께 이국적인 문화와 자연을 경험하며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넓은 세상을 향한 꿈과 비전도 갖게 되었습니다.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을 관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3일~5월 21일(총 5회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문화에 대하여 인정하고 존중하며 올바른 의사소통의 기술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습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반기 한국어교육 수료식**

7월 12일 상반기 집합 한국어교육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1~4단계까지 총 4개반이 100시간의 수업을 마쳤습니다. 수강생 중 22명이 80시간 이상 출석하여 한국어 능력도 쑥쑥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여 한국어 능력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주영아원
무더운 여름에는 물놀이가 짱!**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자 올해도 전주영아원 옥상정원에 물놀이장을 오픈했습니다. 아이들은 '물'이라는 자연물을 온몸으로 느끼며 무더위를 날려버렸는데요. 다양한 놀잇감을 통해 대근육, 소근육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개념과 지식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친구들과 함께 서로 협동하며 사회 적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동어린이집
수박 프로젝트 발표회**

만 3세반에서는 여름을 맞아 '수박'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가정과 연계한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7월 13일에 PPT 발표회 및 부모참여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노래발표, 유아가 출연하는 영상동화보기, 게임, 화채 만들기를 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마포어린이집
건강정보관 체험**

7월 5일 아현건강문화센터로 건강 및 생활안전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손 씻기, 식품구성탐 활동, 심폐소생술, 교통안전 등 다양한 체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가정에 돌아가서도 건강을 위하여 유아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가족 및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홀트어린이집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견학**

8월 20일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아우룸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신비로운 과정을 알아보고 임산부 체험, 태동 체험, 아기 돌보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해보며 부모님의 마음도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구심리상담센터
부모양육 토크 콘서트 개최**

지난 6월 예비 산모들을 대상으로 여성아이병원 내 7층 문화센터에서 문경숙 심리상담사를 모시고 예비부모교육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에서는 예쁘고 소중한 아기를 곧 맞이할 예비엄마들에게 양육 교육 및 시기별 양육법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용알이, 걸음마 등 처음을 홀로 맞이하는 입양대기 아동 지원캠페인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KakaoTalk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추가하고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
카카오 검색창 아이콘을 클릭

검색창에서 플러스친구
"홀트아동복지회"를 검색한 후
친구추가를 눌러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후원사업 소개

입양대기아동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입양대기아동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비, 의료비, 재활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미혼한부모가정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한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용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 학교를 운영해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3~6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향기나는 결연, 허브를 소개하면 예쁜 선물을 드려요!

9월은 또다른 시작이 이루어지는 달이에요!
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2학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죠?!

아이들과 결연으로 새 인연을 맺은 나눔의 기쁨을
가족, 친구, 지인들도 함께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향기나는 결연, 허브를 지인에게 소개하시면
예쁜 선물을 후원자님께 보내드릴게요.



□ 참여대상 : 홀트아동복지회 모든 후원자님

□ 참여방법

- ① 허브 홈페이지 주소 (www.holt.or.kr/hub)를 넣고 지인에게 허브를 소개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 ② 메시지를 캡처해서서 홀트아동복지회 공식연락처(010-6223-8674) 문자를 보내주세요!
- ③ 확인문자를 받으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선물이 소진되면 이벤트가 종료되니 참고해주세요.



향기나는 결연, 허브 지인 추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에그먼트에서 손수 제작하여 후원
해주신 예쁜 배넛저고리와 거즈담
요, 모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가고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한샘

이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이
자신의 집이 될때 건강, 화목, 성공이 시작됩니다.
한샘은 개성 있고 아름다운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동북아를 이끌어 갈 홈 인테리어 유통 전문 기업, 한샘
company.hanssem.com